

정부기관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이전부처 중 처음으로 세종시 입주 완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2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입주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본부 직원 777명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세종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세종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활용, 2회(11.30~12.2, 12.7~9)로 나누어 이전하여 업무공백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이번 이전에는 5톤 트럭 기준 380대를 투입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정부세종청사로 옮겼다. 농식품부는 세종청사 첫 근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10일 오후 2시 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서규용 장관 주재로 입주식을 가졌다. 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입주식에는 유한식 세종특별시장도 참석해 세종시 첫 입주를 축하했다. 시루떡 절단과 명판석 제막을 하며 참석자들은 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과 농정 발전을 기원하였다. 세종청사 주소가 적힌 대형 명함을 선보인 서규용 장관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족우기'를 보급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농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세종청사의 이점을 십분 살려 농어업인들과 소통

하는 현장 농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워크 센터 활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미얀마 국가방역관리자 가축방역 정책연수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에서는 대민국의 구제역 방역정책 및 진단기술을 전수하고자 미얀마 국가방역관리자를 초청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가축전염병 관련 규정·정책, 가축질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공항만 국경검역을 체험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토의를 통하여 미얀마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절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11.9.5일자로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며, 구제역의 경우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을 막는 등 선진 방역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현황(5회) : 2000.3월, 2002.5월, 2010.1월, 2010.4월, 2010.11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미얀마 구제역 방지 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미얀마 구제역 정책/진단 전문가 육성 이외에도 구제역 진단실험실 신축, 구제역 진단 기자재 지원 및 미얀마 구제역 방지 캠페인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전체 사업규모 : 300만불, 사업기간 : 3년)

또한 구제역 및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의 예방 및 전파차단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전반을 전산화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며, 구제역·AI 실험실 견학을 통하여, 신축되는 미얀마의 구제역 실험실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에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의 구제역 예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제역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악취, 친환경 미생물로 없앤다
‘악취가스 감소 처리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돼지 사육 시 가장 골칫

거리인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친환경 미생물로 없애는 ‘악취가스 감소 처리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 처리제는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인 된장에서 분리한 신규 미생물 ‘피치아 화리노사(Pichia farinosa)’와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이들 미생물은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에 대해 우수한 제거 활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이 미생물 처리제를 돼지분뇨에 처리한 결과, 돼지분뇨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가스인 황화수소 가스(H₂S)를 95%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해로운 병원성도 전혀 없어 사람이나 가축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악취가스 감소 처리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며, 양돈 농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유재홍 박사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농경지·하천·대기 등을 오염시키고 주변 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제를 이용하면 악취가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겨울철 동파 방지와 축사바닥 빙판 주의
따뜻한 물을 먹이면 사료낭비 줄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

» 정부기관소식

면서 젖소는 생산성 감소, 미끄러짐에 의한 탈골, 유두손상, 송아지 폐사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젖소 사육농가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월동 준비를 위한 조사료 확보, 우사보온, 보온급수, 수도배관시설 등을 점검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특히, 착유실과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착유우가 이동하는 통로나 축사바닥의 빙판은 소가 미끄러져 탈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없애고 모래나 흙 등을 깔아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먹이는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물이 너무 차면 젖소의 체온을 떨어뜨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 사료가 낭비되고,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온급수기나 지하수를 활용해 너무 찬물을 먹지 않도록 20℃ 내외의 수온이 유지되도록 조절해 주어야 한다.

초유 또는 분유를 먹는 송아지는 보온과 환기 관리에 신경을 쓰고, 바닥의 냉기와 문틈의 섯바람을 막아준다. 또한 송아지 설사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급성으로 많이 발생하며 감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보온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환기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환기가 안되면 축사 내 유해가스가 쌓여 호흡 및 체표에 발산한 땀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한다. 따라서 찬바람을 막기 위해 북쪽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보온보다는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일리지는 겨울동안 주된 조사료원인데, 사일리지 제조 후 저장에서 먹이기까지 사일리지 품질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일리지 안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봉 후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내는 면적을 가능하면 적게 하면서 자른면을 공기의 노출로부터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산부를 위한 건강레시피」 책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임신부와 수유부가 가정 내에서도 권장 영양섭취기준에 따른 균형 잡힌 식생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임신 주기별, 계절별 식단 및 레시피를 수록한 「임산부를 위한 건강레시피」를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라 하여 무조건 많이 먹는다면 임신 중 체중 증가를 피하기 위한 다이어트 등의 행동은 태어나 산모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태아의 혈액과 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임신부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책자 주요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식사구성 안 ▲좋은 식재료 고르기 및 손질·보관법 ▲제철 음식레시피 ▲임산부 증상(입덧, 빈혈증, 변비증)별 권장 음식 레시피 등이다.

〈임신 주기별 권장 식사구성안〉

식사구성안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과 식생활지침(보건복지부, 2010)을 토대로 임신초기, 임신중기, 임신후기, 수유기로 구분하여 일주일분 식단을 제시하였다.

- 임신초기(3개월 이내) 하루 에너지 권장량은 2,000kcal로 비임신여성(1,900kcal)보다 우유 1잔만 더 섭취하면 된다.

- 임신중기(3개월~6개월)는 하루 2,340kcal 섭취를 권장하며, 이는 임신 초기보다 곡류 0.5단위(쌀밥 1/2 공기), 고기·생선·계란·콩류 중 1단위(쇠고기 기준 60g), 과일 1단위(귤 1개), 유제품 1단위(우유 200ml 1컵)가 더 추가된 양이다.

※식품 1단위 : 식단 구성을 위한 식품별 교환단위로 식품의 1인 1회 섭취량 및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양을 바탕으로 설정

※주요 식품 1단위 : 쌀밥 210g 1공기, 쇠고기 60g, 동태 한토막, 계란(중) 1개, 채소류 70g, 배추김치 40g, 땅콩 15알, 귤 1개, 우유 200ml 1컵

- 임신후기(6개월 이후) 하루 에너지 권장량은 2,450kcal로 임신 중기보다 단백질 식품군만 1단위 더 섭취하면 되며, 출산 후 수유부는 임신 중기와 비슷한 식사구성안이 권장된다.

〈좋은 식재료 고르기 및 보관법〉

임신·수유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식재료를 골라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브로콜리는 같은 크기라도 더 무거운 것을 고르도록 하고 꽃이 활짝 핀 것은 맛과 영양이 떨어지므로 고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살짝 데쳐 꽃송이 부분만 랩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 단호박은 껍에 상처가 없고 끝이 깊고 일정한 것이 좋으며, 색이 짙고 하얀 분이 많은 것이 잘 익은 호박이며, 생으로 보관할 경우엔 껍질을 벗겨 씨를 긁어낸 다음 랩에 싸서 비닐 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삶거나 찌서 보관할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 해조류는 색이 검고 윤기가 있고 살이 두꺼운 게 좋으며, 특히 다시마는 흰 가루가 많이 묻어나는 것을 고르고, 조개는 입을 꼭 다문 것이 싱싱한 것이다.

- 조개는 해감을 시켜 보관할 경우엔 소금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고,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이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이 권장되며, 요즘과 같은 겨울철 탄수화물 식재료로는 고구마, 차조, 단백질 식재료는 과메기, 귤, 비타민 및 무기질 식재료는 귤, 참다래, 무, 콩나물 등이 좋다.

이번 책자에 겨울 요리 레시피로 고구마죽, 굴샐러드, 차조멸치주먹밥, 닭가슴살무쌈말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입덧, 변비 등 임신부 증상별 추천 음식〉

입덧에는 크래커나 마른 곡류 식품을 먹거나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고지방이나 양념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추천 음식 레시피는 결명자차, 오미자차, 레몬미역초, 쌀밥과자 등이 있다.

- 빈혈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율을 높이고 분만 시 과다 출혈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이 풍부한 식품과 조혈 작용에 관여하는 단백질, 비타민B,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추천 음식 레시피 : 시금치잡채, 굴차우더, 소고기젓잎만두 등

» 정부기관소식

-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L 이상의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과일, 야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 추천 음식 레시피 : 샐러리견과류샐러드, 애플칩 등

식약청은 이번 '임산부를 위한 건강레시피'를 책자로도 발간하여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임산부 및 수유부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책자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홍보물자료실)와 영양정보 홈페이지(www.kfda.go.kr/nutri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렴도 1위 기관으로 선정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준정부기관 부문(73개)에서 최고점수(8.99점)를 받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적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청렴성 제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적결과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고 권위의 대규모 조사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해 중점 시행한 주요 반부패 추진업무 중 축산물품질평가 공정성관리시스템과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동아리 활동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은 시대적 사명이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청렴·윤리경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직원들의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012. 11. 27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정보(KATI) 통합 지원서비스 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정보(KATI)' 통합 지원서비스를 지난 12월 8일 정식 오픈했다.

최근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폭 등에 따라 쉽고 빠른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필수 콘텐츠 확충을 통해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T는 '97년 국내 유일의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전문정보로서 구축되어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로 오픈한 KATI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 KATI에서 정보 이용 및 사업신청까지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제공 ▲해외시장동향 및 한국산 검역 불합격 사례 등 필수 콘텐츠 대폭 확대 ▲해외바이어에게도 한국의 상품정보 제공 및 거래제의 기능 구축 등이다.

또한 정보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보다 편리한 정보이용환경을 구축했고, 뉴스레터 시스템 운용으로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KATI는 웹사이트(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마케팅 1조원 시대를 열다 농산물 공동계산·연합마케팅 '더블 1조' 달성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12월 10일 농산물 공선출하회의 공동계산 금액과 연합마케팅 실적이 각각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공동계산은 협동조합 고유의 마케팅 기법으로 영

세한 농가 여럿이 모여 마치 하나의 대농가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농가 모임이 공선출하회이며, 농협은 공선출하회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모아 공동으로 판매하여 개별 회원에게 합당한 대가를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둘 이상의 농협이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연합마케팅이다.

공동계산과 연합마케팅은 농업인들이 개별로 대형 유통업체나 상인들을 상대할 때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심한 가격 등락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업인들의 개별출하가 일반적이어서 농업인 소득 향상이 어려웠다.

이에 농협은 2009년부터 개별출하 조직인 기존의 작목반 지원에서 벗어나 공동계산 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중점 육성·지원 했고, 2012년 불과 몇 년 만에 공동계산과 연합마케팅 1조원을 각각 달성한 것이다.

이는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원예 농산물 우리나라 전체 연간 생산액 14조~15조원의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 역시 영세 소농 구조의 우리나라 농업 여건을 극복할 대안으로 공동출하조직(공선출하회) 육성을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20년까지 공동계산 금액을 5조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과 자금지원 등을 집중하고 있다.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공동계산과 연합마케팅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이 농협을 중심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풀뿌리 경제 활동”이라며 “최근의 경제 민주화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활동 주체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